

## 건축은 죽었다?

이 주 연 | 건축평론가

### 근조-건축은 죽었다?

지난 해 말, 건축동네의 한 해를 정리하는 자리도 될 법한 큰 행사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바 있다. 한국건축가협회가 주관을 하여 마련한 이 자리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설계경연의 축제마당인 <대한민국 건축대전>에 출품된 우수한 작품들을 선보였다. 기성건축가들이 초대되어 자신들의 설계 작품을 소개하는 전시회가 주를 이루면서 최근 건축계의 관심 사안들을 주제로 한 토론회, 강연회가 열리는 등 '요즘 건축'에 대해 보고 듣고 즐길만한 이벤트가 다채롭게 펼쳐졌다.

그런데 기성건축가들의 초대전이 열리고 있는 전시실 코너 한쪽에 예사롭지 않은 작품이 전시되어 전시장을 찾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끌었다. 이 작품은 대부분의 전시작품들이 그러하듯 출품자가 설계한 건축 작품을 도면이나 사진, 모형 등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이 전시물은 건축인들의 축제 마당에서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기에 충분한 화제꺼리였다. '건축은

죽었다?' 라고 제목을 붙여도 좋을 법한 이 작품은 거울로 만든 액자에 건축사진을 붙여놓고 죽음을 상징하는 검은 띠를 둘러 마치 영정을 연상케 했고, 그 앞에는 향을 피워놓은 분향소까지 설치해 놓았다. 분향대의 구성도 이채로웠다. 동전, 모형 권총, 소주병 등이 촛대를 배후에 두고 목기 위에 영겨져 있었다. 그리고 거울액자 안에는 강남(특별)구(역)에 세워진 초호화 고층아파트 '타워팰리스Ⅲ'가 멋진 품을 자랑하고 있었다. 이 건물은 대한건축사협회와 건설교통부, 서울경제신문이 공동으로 주최한 2005년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주거부문 대상을 차지한 건물이다. 이런 마당에 수상을 축하하기는커녕 왜 '근조'를 상징하는 검은 띠를 둘러 분향소를 차렸을까. 더욱이 이 건물을 포함한 여러 건물들이 화려한 치장을 하고서 건축상 수상작 코너에 나란히 진열되어 자태를 뽐내고 있었으니 두 전시 장면을 바라본 관람객들은 의아하지 않았을까.

'타워팰리스Ⅲ'를 '애도'하며 분향소를 차린 출품자(이종건·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시물 앞에 세워놓은 설명문에 타워팰리스에 얽힌 서로 다른 두 견해를 인용해 적어 놓았다. 그것을 재인용하자면, 먼저 <한국건축문화대상> 주최자의 한 축인 서울경제신문은 "〈한국건축문화대상〉이 '명품 아파트'의 보증수표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고급아파트의 집결지인 강남권에서도 '빅3'로 불리는 도곡동 타워팰리스, 삼성동 아이파크, 대치동 동부센트레빌이 잇따라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으면서 <한국건



'건축은 죽었다?'라고 제목을 붙여도 좋을 법한 '타워팰리스Ⅲ'은 거울로 만든 액자에 건축사진을 붙여놓고 죽음을 상징하는 검은 띠를 둘러 마치 영정을 연상케 하고, 그 앞에는 향을 피워놓은 분향소까지 설치했다.

축문화대상)의 위상도 재조명되고 있다 …(중략)… 특히 지난해 삼성동 아이파크의 대상 수상에 이어 두 단지가 연이어 <한국건축문화대상>을 수상함으로써 이 단지들은 강남권 대표 단지의 명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한 셈이 됐다”며 <한국건축문화대상>과 수상작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다. 아니 상의 의미를 부각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마치 초호화 고급 아파트 단지를 선전하는 홍보성 발언처럼 들린다. 이 설명만으로 보자면 <한국건축문화대상>이 명품 아파트를 건설하는 기업에게 봉사하는 좋은 터전이 됨을 강조하는 듯이 보인다. 그것도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공정해야 한다는 아주 단순한 기본 원칙을 우선 생각해야 하는 언론이, <한국건축문화대상>을 공동 주최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런 시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사회 안에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소통될 수 있을 지 의문스럽다. 이런 논리의 틈바구니에서 <한국건축문화대상>과 건물을 보노라면 건축가가 재벌기업에 봉사함으로써 재벌과 언론의 보살핌 아래 편안한 삶을 누린다는 ‘공생의 미덕’을 배우라는 것인지, 건축의 사회적 지향과 책임을 명품 개발에 기여하고 그 명품의 자본가치가 더욱 더 높아지도록 판을 짜자는 것인지 감지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 시대 건축문화, 주거문화의 진수는 극소수의 특화된 영역 만들기의 장식보다 사회의 보편성 안에서 그 가치를 찾아냄으로써 그 참맛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다른 견해로서 문화관광부 공간문화과장은 “……<한국건축문화대상>의 슬로건은 ‘건축은 문화다’이고, <한국건축문화대상>의 명칭도 ‘건설기술대상’이 아니고 ‘건축문화대상’이라는 사실에서 …(중략)… 타워팰리스와 동부센트레빌(국무총리상)이 나란히 1,2등을 수상한 것은 문제가 있다 …(중략)… 우리나라 건축문화, 주거문화에 어떤 영향을 의도하고 …(중략)… 수상작으로

타워팰리스전경



결정했는지 심사위원들에게 묻고 싶다 …(중략)… 부동산 값 폭등 초래로 너무나 많은 갈등과 사회적 위화의 소재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략)… 아니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문화관광부 안에 공간문화과라는 부서가 건축문화의 전문성을 비교적 잘 수용하려는 자세로 새로이 만들어져 주목되고 있던 터에 그 분야를 주관하는 관리로부터 이런 시각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만하다. 그것은 <한국건축문화대상>이나 대상건물이 문제가 있다는 비판의 시선보다 건축을 건설이 아니라 문화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를 사회와 공유하고자 하는 의지 때문이다. 누구나 다 짐작하고 남음이 있겠지만, 이 분향소가 던지는 메시지는 우선 건축동네 안에서 시행되고 있는 건축상의 시상 풍토를 보기 좋게 조롱하고 있는 한편으로, 하늘 높이 솟아오르고 있는 초고층 아파트가 갖춰야 할 사회적 도덕성 부재에 대해 질타하고 있는 것이며, 아울러 이로 인해 야기되고 있는 왜곡된 한국 현대도시의 주거문화가 깊이 꼬집고 있는 셈이다. 아니 이런 것에 앞서 더욱 근본적인 측면에서 이 땅에 건축이 있게 한 근

## 건축

거가 되는 사회와의 소통에 대한 강한 의식이 살아 있다. 말하자면 건축의 사회적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 구조를 내세우더라도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향유해야 할 공공성의 가치 또한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만든다.

## 소통-건축은 문화다?

앞의 상반된 두 인용문 자체는 한 가지 사안에 대한 견해를 서로 달리 하고 있는 입장을 밝힌 것에 불과하지만, 그래서 그 어떤 입장이나 견해에 대해서도 모두 수용할 수 있어야 진정으로 성숙한 소통의 지혜를 함께 할 것이지만, 굳이 확대해석하자면 우리 사회 양극화 현상의 한 단면을 잘 설명하고 있는 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그리 거창하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냉철하게 이 분향소를 느껴보는 것도 실마리를 찾는 한 가지 길이 될 수도 있다. 그냥 그 자체가 담고 있는 소박한 외침을 소중히 여기는 일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있는 그대로를 보고 받아들인다 해도 여전히 개운치 않은 구석이 남아 있다. 분향소 설치의 동기와 의도가 어찌됐든 그것이 사회적 반응을 동반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만큼, 이는 다분히 건축 동네의 사회적 의사소통 구조 속에서 우선 논의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이런 의사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성숙한 사회라면 앞으로 보편적 가치로서 건축의 사회적 인식을 서로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걸어볼 일이다.

이 건물에 대한 상업적 성과를 포함한 건축적 평가와 함께 이 건물에게 주어진 상에 대한 가치를 논하는 일은 어쩌면 상황을 접하는 입장에 따라 제각각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어떤 논의로 집약되든 분명한 것은 우선, 건축동네 안에서 아무리 건축적 판단을 앞세

「타워팰리스Ⅲ」가 던지는 메시지는 건축동네 안에서 시행되고 있는 건축상의 사상 풍토를 보기 좋게 조롱하고 있는 한편으로, 하늘 높이 솟아오르고 있는 초고층 아파트가 갖춰야 할 사회적 도덕성 부재에 대해 질타하고 있는 것이며, 아울러 이로 인해 야기되고 있는 왜곡된 한국 현대도시의 주거문화를 깊이 꼬집는다. 건축의 사회적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 구조를 내세우더라도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향유해야 할 공공성의 가치 또한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만든다.

우고 건축 동네 분위기를 내세운다 해도, 이 사안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무시하거나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이다. 흔히 조형성이나 작업의 완성도로 말하는 건축적 가치보다 건축의 사회적 개입에 따른 뒷감당에 더 주목하는 것이, 건축이 이 땅에 있게 하는 존재의 더 큰 당위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말하자면 요즘 우리 시대의 담론 가운데 하나인 양극화 문제도 단순히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양자구도나 잘 살고 못 사는 관계를 따지는 자본의 논리만으로는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없다. 분명 사회적 반응을 우선 고려해야 할 이슈임에 틀림없다. 지난 해 연말연시 온 나라를 혼란의 늪으로 몰고 갔던 '황우석 사건' 역시 이미 의학적 판단으로는 사건의 결말이 났다고 볼 수 있지만, 이후 대책에 대하여 여전히 다른 가능성을 놓고 다양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것도 사회적 반응이라는 간과할 수 없는 열개가 남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사안들뿐만 아니라 우리네 사회를 둘러싼 모든 일상은 그 사회와의 관계와 서로의 반응을 통하여 공유될 수 있어야 하고, 그만큼 보편의 가치로 사회와 만나는 원활한 소통의 관계가 소중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분향소는 우리에게 매우 분명한 소리로 강하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에 제대로 반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전시장 안의 이단아처럼 홀로서 있던 이 분향소는 다른 설치 작업들과 마찬가지로 전시 종료 후 철거되었고, 주최 측에서조차 전시장 현장의 정황을 객관적으로 담아놓은 공식 기록도 남겨놓지 않았다. 건축 관련 매체는 물론 이거니와 대중을 상대로 하는 언론에서도 이런 전시장 풍경은 변변한 소식감이 되지 못했던 모양이다. 관심 밖이라 실제 정보를 접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터이고, 건축동네 축제 분위기를 다운시키는

냉소적 이벤트로 보고 넘겼을지도 모른다. 물론 그냥 한번 스쳐지나갈 수 있는 가벼운 해프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너무나 진지한 담론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거기서 기대하는 것은 다분히 선언적 교의처럼 이해되어야 한다는 또 다른 강요가 아니라, 건축 동네 안에서 더불어 소통하기를 바라는 소박하지만 진지한 담론인 셈이다.

### 책임-건축은 살아 있다?

서로 배타적인 관계를 설정하려들면 극과 극이 절대 만나지 못하는 지경으로까지 옮겨갈 것이다. 사실 분향소를 둘러싼 논의의 핵심은 이것과 저것을 견주어 놓고 옳고 그름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 논의에서 주목할 것은 하나의 입장으로 존재하는 나와 타자간의 사회적 관계를 성찰하는 것이 의미가 더 크다는 것이다. 작품을 내건 이 교수는 “타자의 인식이 부재한 사회는 자기마저 존재하지 않는 기형의 사회다”라고 역설했다. 말하자면 공동체 안의 분명한 사회적 기반 위에서 서로의 주체성이 공유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 시각으로 분향소를 바라볼 때 거기서 무엇을 찾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그 내재된 생각들을 응원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물론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타자에 대한 사회적 함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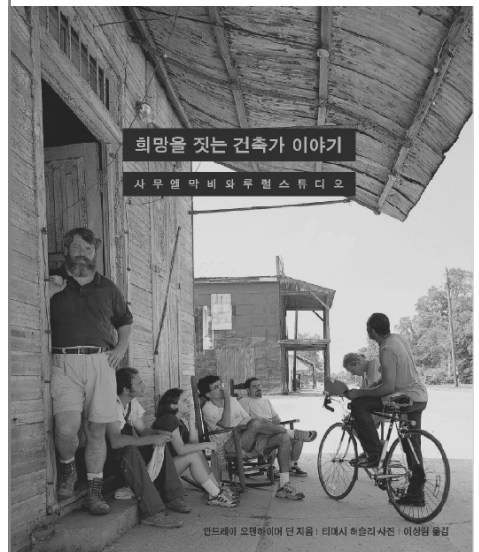
요즘 사회 각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양극화 현상 해결도 결국 공동체 안에서의 소통과 공유가 가장 우선적인 관건이다. 극과 극은 서로 통한다는 사회적 통념이 우리네 정서를 지배하고 있는 사이,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극복하고 바꿔나가야 하는 숙제가 바로 양극화 현상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다 한다. 그러니 극과 극이 서로 맞잡을 수 없을 정도로 간극이 커져가게 되면 그 실마리를 푸는 것 역시 그리 만만한 게 아

닐 것이다. 최근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최소한 2명 중 1명 이상은 ‘향후 10년간 한국의 미래가 절망적’이라고 답했으며, 10명 중 6명이 ‘앞으로 10년 동안 빈곤이나 부의 세습이 심화될 것이다’라고 답했다. 말하자면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자,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야기의 발단이 되었던 이른바 ‘명품’을 권하는 요즘 사회의 풍토를 건축 동네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지 생각해 보자. 건축에 있어 명품은 세련된 장식품을 만들 듯, 온갖 기술을 동원해 찍어 만든 ‘상품’이 아니다. 건축이 사회적인 환경 안에 어떻게 놓이든 그 공간과 함께 하는 사람들에 의해 시간의 켜를 채워가며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삶의 공동체가 건축의 명품이어야 한다. 오브제로서의 명품을 오랜 시간 동안 숙성된 문화유산 속에서 찾는 것은 오랜 시간의 가치만을 우선으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과 함께 한 사람의 흔적을 통해 문화의 진정성을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희망을 짓는 건축가 이야기』  
(안드레아 O. 던 저, 이상림 역, 공간사)

건축가 혹은 건축이 사회와 소통하며 아름다운 명품으로 사랑 받고 자리나는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네 건축동네에서 이를 건축의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서로 소통할 수 있다면 분명 건축은 죽어있지 않고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건축이 죽어있지 않고 살아 생기 있는 모습으로 사람과 함께 하는 풍경을, 필자는 최근 출간된 책 한 권에서 우연히 발견하고 기뻐했다. 『희망을 짓는 건축가 이야기』(안드레아 O. 던 저, 이상림 역, 공간사)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이 책은, 건축가 혹은 건축이 사회와 소통하며 아름다운 명품으로 사랑 받고 자라나는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도 좋을 것이다. 이 책의 주인공들은 건축가 새뮤얼 막비와 그가 운영하는 루럴 스튜디오(rural studio)에서 실무와 공부를 함께 하고 있는 대학생들이다. 이들은 미국 앨라배마 주 헤일 카운티를 중심으로 주민들에게 건축에 있어서의 봉사정신을 현장에서 실현시켜 나가고 있다. 이곳은 흑인 빈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소외된 땅으로, 원초적 삶을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작은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새뮤얼 막비의 진두지휘로 운영되고 있는 루럴 스튜디오는 인근 오번대학교 건축학과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조직된 설계 실험 집단인 셈이다. 새뮤얼 막비와 루럴 스튜디오는 주민들의 삶의 공간을 무료로 마련해주는 일련의 건축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기존의 건축 질서와 재료, 공법 등의 기준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실험을 통해 건축의 사회적 기여와 역할의 참 모습을 아름답게 펼치고 있다.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도 공간을 꾸미는데 필요한 훌륭한 재료가 될 수 있었다. 이들 활동지역 일대에 세워진 건물들은 사회 참여와 건축의 전문적 아이디어가 접목되어 마을 풍토와 생활 현상이 잘 흡수된 친화적 공간으로 거듭났다. 지역 주민들에게 그 집들은 강남의 타워팰리스나 뉴욕 맨해튼의 호화아

건축에 있어 명품은 세련된 장식품을 만들 듯, 온갖 기술을 동원해 찍어 만든 '상품'이 아니다. 건축이 사회적인 환경 안에 어떻게 놓이든 그 공간과 함께 하는 사람들에 의해 시간의 껍을 채워가며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삶의 공동체가 건축의 명품이어야 한다. 오브제로서의 명품을 오랜 시간 동안 숙성된 문화유산 속에서 찾는 것은 오랜 시간의 가치만을 우선으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과 함께 한 사람의 흔적을 통해 문화의 진정성을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파트 부럽지 않을, 사랑이 가득 담긴 보금자리일 게 분명하다.

그렇다고 새뮤얼 막비와 루럴 스튜디오가 자칭한 몫이 희생과 봉사를 통한 사회적 책임 수행이라는 건축의 덕목을 실현하는 것에만 맞춰져 있었던 것은 아니다. 건축가가 택해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실현을 위한 현장만이 진정성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가 주목했던 것은 마을 풍토와 사람살이를 읽어내고, 그 공동체 안에서 주민들과 하나 되는 지혜를 건축의 실천적 사회 참여 형식으로 찾아내려 했다는 것이며, 그것이 그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동등한 입장에서 삶의 지혜를 공유할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몫을 던져주었다는 점이다.

그들 작업이 보여준 사회적 가치는, 건축이 평범한 동네에 공적인 사회 동인으로 참여함으로써 그들 삶에 기운을 불어 넣어주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빚어진 집들은 설령 그 형태가 반듯하지 못할지라도, 또 값비싼 재료가 들어가지 않아 호화롭지 않더라도 분명 '명품'임에는 틀림없다. 이런 명품이라면 그 누구도 검정 띠를 두르고 '이 건물은 죽었다'며 분향소를 설치해 놓지 못할 것이다. ●●●